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75>

JCCT 2021-11-11

## 시니피앙과 라캉 정신분석 반복과 반영의 나르시시즘

### Signifiant and Lacan Psychoanalysis Narcissism of Repetition and Reflection

이동석\*

Lee Dong Seok\*

**요약** 본 연구는 라캉 정신분석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시니피앙(기표)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시니피앙이 주체를 통해 발화됨과 동시에 그 사후성으로 동반하는 의미와 의미작용의 미끄러짐을 증명할 것이다. 라캉이 그의 세미나와 ‘에크리’에서 시니피앙을 설명한 부분을 직접 인용하여 시니피앙이 일상대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담화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시니피앙이 가지는 목적성과 근거 없는 무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나르시시적이고 강박적인 자기 반복과 끊임 없는 자기반영을 통한 가장 안정된 장소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폐하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라캉 정신분석이 지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시니피앙(기표)과 다음에 연결되는 시니피앙과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의미의 균열을 발견하고, 주체의 끊임없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시니피앙이 신체와 정신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것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논점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담화 속의 지배자인 시니피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타자에 대한 끊임 없는 저항을 통해 라캉 정신분석이 지향하는 “그곳이 있던 곳에 그곳에 도래해야 하는 이유”를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라캉, 정신분석, 시니피앙, 반복, 반영, 나르시시즘

**Abstract** This study will analyze the meaning of the signifiant, which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Lacanian psychoanalysis, and will prove the slip of meaning and signification that are accompanied together at the same time when the signifiant was utter through the subject. By directly citing the part where Lacan explained signification in his seminars and Écrits, I would like to examine how signifiant is carried out in everyday conversation. In addition, the dialogue that takes place in our discourse has the purposefulness and groundless purposelessness of the signifiant. Understanding this purpose is the core part that Lacanian psychoanalysis aims to pursue, and it discovers the cracks of the hidden mea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ant and the signifiant connected to the next, presenting that the signifiant which arouses unrelenting fantasy of the subject is the practical ruler of body and mind. This thesis is aimed to present the above points mentioned above, an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ignifiant, the ruler in discours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e autonomy as a subject resisting against “Where it was, I must come into being,” pursued by Lacan psychoanalysis.

**Key words** : Lacan, Psychoanalysis, Signifiant, Repetition, Reflection, Narcissism

\*정회원,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8월 22일, 수정완료일: 2021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0일

Received: August 22, 2021 / Revised: August 30, 2021

Accepted: September 10, 2021

\*Corresponding Author: vaiolee9@hanmail.net

Dep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okje Univ, Korea

## I. 서론

라캉(Jacques Lacan)정신분석 연구자료인 라캉 세미나의 영어번역본은 전부 출간되어 있으나, 영어번역본만으로는 라캉의 불어 세미나원본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캉은 이런 이유로 세미나에서 ‘필경사’(transcription)라는 언급을 했으며, 이 단어의 표현은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인 기표(시니피앙)의 진정한 의미를 주장하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라캉은 최초 기표에 의해 다음 기표로 옮겨가는 기표가 표상(représentation)되어 의미화되고, 그 기표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의 부정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기표와 기표 간에 간극이 발생하며 끊임없이 기표와 기의(signifiant/signifié)[1]는 미끄러짐을 통하여 기표가 의미화된다. 따라서 발화주체가 구사하는 언어의 체계에 의해 지배되며 상징계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환상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 기표와 기의는 소쉬르(Saussure)의 용어로, 기표는 언어의 세계에서 아직 의미화되지 않은 것(소쉬르가 주장한 것처럼 모든 시니피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기의는 기표에 의해 의미화 되고 상징화된 언어의 세계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의 기표가 아닌 불어의 시니피앙(signifiant)으로 기술한다. 인간은 시니피앙을 지배한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시니피앙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로 언제나 대타자를 위한 환상을 꿈꾸며 사는 것이다. 깨달음의 순간은 우연처럼 다가온다. 모든 의미화의 출발은 최초 기표로부터 출발되는 여정이고 시니피앙은 인간이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라캉은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주장했다. 불어의 ‘parlétre’란 ‘말하다’의 ‘parler’와 ‘존재하다’의 ‘être’가 합쳐진 말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캉의 시니피앙을 분석하면서 공개되었던 라캉의 세미나와 에크리(2019)에서 시니피앙의 역할과 연쇄를 고찰해 보고, 시니피앙의 무목적성을 통한 반복과 반영이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자기폐하의 끊임 없는 회귀를 추구하는 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인간은 시니피앙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필자는 이것을 시니피앙의 무겁지 않은 목적성을 지닌 담화의 사례를 증명하면서 시니피앙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정신분석의 방향에 대해 그 전망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 II. 시니피앙의 연쇄

## 1. 시니피앙의 무목적성

라캉은 세미나II에서 화성에서 온 외계인과의 조우한 이야기를 제시한다. 이야기는 화성에 도착한 세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화성인을 만나게 된다. 나중에 그들은 화성인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토론한다.

“어떤 사람이 전자물리학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고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률의 기능과 메트로 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매번 일어나는 우리 공적 담화나 사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2]

우리의 일상적인 담화도 매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담화의 내용은 말함과 동시에 잊혀진다. 아니면, 담화가 무엇인가에 끌려가듯이 새로운 담화를 또 다시 파생시키는데 시니피앙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의 담화인 전자물리학과 두 번째의 고체의 본질은 엄밀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며, 전자물리학의 시니피앙이 고체의 본질인 두 개의 시니피앙을 생성시켰으며, 그것이 다른 하나의 의미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후의 담화를 파생시킨다. 신기하게도 음률과 메트로시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 우리가 나누는 일상 속의 담화도 그 순간은 새로운 것이지만 진부한 것이다. 담화 속에서 시니피앙의 연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담화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무의식의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것의 역할이 시니피앙이다. 이것은 선형적인 것이 아닌 우리 몸의 또 다른 기관 같은 것이다.[3]

라캉은 세미나XI에서 lamelle(박막)과 리비도(성적충동)를 비유하면서 리비도를 신체의 또 다른 기관으로 말하고 있다. 정신분석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애적 존재라는 기본 틀을 유지한다. 이것이 리비도이고, 이 리비도가 충동에 의해 몸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닌다. 리비도와 마찬가지로 시니피앙도 우리의 사고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유기체인 몸의 모든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시니피앙을 리비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또 다른 기관으로 표현하였다.

담화의 주인은 타자이다. 화성인이라는 시니피앙이 곧바로 화성인이라는 의미화의 세계에 사로잡혀 마치 화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사적인 담화이면서도 공적인 담화이다. 담화의 주인은 외재성과 내재성을 함께 암시하고 있으며, 이것의 주인은 시니피앙이다. 시니피앙은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의 첫걸음과 동시에 대화를 지배하는 타자이다. 이 담화의 결과, 세 명의 과학자들은 마치 이미 담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니피앙이 도입되고, 곧바로 또 다른 시니피앙으로 옮겨 감을 알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의 생성이 목적지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는 세계로부터 담화가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 장소에는 이미 언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생성된다. 주인기표인 S1은 이런 의미에서 장소로서의 주체이다. 라캉은 에크리(2019)에서 “언어가 없으면 말도 없다.”[4]고 하면서 언어는 정보가 아니라고 했다.

일상 대화는 무의미를 의미화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가진다. 목적성은 우리의 사고체계에 선행된 표상으로서 작용한다. 라캉은 이것을 왜상(anamorphosis)을 통해서 설명한다. 왜상이란 현실의 안정된 구도를 빠져나가는 순간의 직관이다.[5] 라캉은 왜상을 “함수관계”라 말하면서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이야기한다. 이 함수관계를 통해 바라보는 관점을 스코톰(scotome, 視野暗點症)과 비교하여 우리의 지각 가능한 관점은 눈의 조망점을 통하여 수학적으로 명시된 세계를 바라보는 강력한 함수관계의 방식으로써 상징화된 세계를 시사한다. 우리는 시야암점증(scotome)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라캉의 관점에서 상징계의 대타자가 부여한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된다. 여기서 ‘scotome’이란 시야에 까만 점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화성인과 조우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왜상의 관점이 나타난다. 세 명의 담화는 의미없는 대화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얽히고 섞인 상호 주체적인 담화이다. 각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담화의 뒷면에 있다. 우연히 조우한 지점, 그 자체가 대화라는 것이다. 만남의 우연이 새로운 시니피앙을 파생시켰고, 조우전까지의 의미화되지 않은 상상계(언어로 의미화되지 않은 영역)는 담화를 통해 상상계(언어로 의미화된 영역) 타자의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각자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무목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인가? 이 지점에서 최초의 시니피앙 S1은 주인의 임무로서 타자를 대리하는 주체로 담화의 의미를 산출한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은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의 의미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으며, 한 사람의 대화가 끝나면 다른 사람의 대화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최초의 시니피앙은 그 다음 시니피앙에게 주이상스(jouissance, 향유)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담화의 상호주체성은 계속적으로 소외와 분절을 양산한다. 따라서 각각의 주체인 S1은 이미 거기에 있는 세계인 언어로부터 주체의 분절을 통해서 주인 기표이며, 거꾸로 대화하여도 그 의미작용은 통한다. 왜냐하면 시니피앙은 항상 무거운 목적지를 안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캉은 에크리(2019)에서 말하기를 “피에르가 폴을 쳤다”라는 했다. 이 문장에서 거꾸로 문장을 보아도 그 의미작용은 동등하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시니피앙의 시간성은 무한대이다. 계속적인 의미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주체성은 스스로에게 무목적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서로 간의 상호주체성 이전에 시니피앙이 있다.

## 2. 시니피앙의 물이해와 운반자

상징계는 강력한 의미화가 작용한다. 아래의 두 예시는 존재가 언어 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의 색깔과 대상의 불일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타자의 질서에 종속되어 버린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정신분석에서 거세(언어에 의해 의식이 차단되는 것)라 하고, 라캉의 표현을 빌려오면 ‘méconnaissance’이다. 이것은 무지와 물이해를 말한다.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진짜의 마치 그것인 것 같이 행동하는 데 반해, 실제의 그 의미는 저쪽 너머에 따로 존재한다. 우리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의식 구조에 한번 들어가서 걸러지면 대타자의 지식으로 나온다. 따라서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 없는 언어의 은유와 환유를 통해 의미를 포장한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은유는 부권에 의해 거세된 단 한번 일어난다. 환유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붉은 천은 소에 대한 공격 코드이다.”[6]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소는 붉은 천을 혐오하는가? 아니면 소의 인지 세계에서 붉은 것은 방어인가? 공격인가? 완전히 인간의 자의적 해석이다. 이 간단한 담화는

상징계 언어의 세계가 심각한 간극을 보여주는 예이다. 시각의 충동과 문자의 해석은 서로에게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색깔의 시니피앙은 더 이상 붉은 것이 아닌 붉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또한 공격성을 유발해야 하는 상징계의 질서이다. 라캉이 사용하는 ‘au-delà’ 의미는 ‘저쪽에’ 라는 뜻이다. 이 말을 주장하는 라캉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저쪽 너머에 상징화되지 않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위의 간단한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징계와 실재계는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으나, 시니피앙의 몰인지에 의해 우리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méconnaissance’는 무의식을 대변하는 전형이다.

“이 구조안에, 형태학의 동물은 그것의 전달자로 인한 이것에 매혹을 느끼는 어떤 것이 있다, 리틀 로빈 새의 예로 빨강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 그 행동의 연속을 착수하는..... 그것을 인지하는 자와 함께 이 기호의 운반자를 연결한다.”[7]

‘어떤 새를 보고 아! 그 새!’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 새는 빨간 새야!’ 말한 후,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계속 묻는다. 그러자 빨간 새라고 말한 사람이 대답하길 그 새 머리가 빨가니까! 라고 대답한다. 이 지점에서 잠깐 판단을 정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새가 빨간 새인지 혹은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빨간 새라고 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우리의 사고가 전체라는 개념의 몰가치성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정립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전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 전체를 규정해야 전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체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한다. 라캉 정신분석은 전체의 동일성의 추구하고 공통적인 가치와는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욕망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전체가 빨강게 되는 전체를 지향하는 이 담화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나와 타자 사이에서 담화를 인지하는 자와 운반하는 자 사이에서 어긋나는 욕망의 균열은 설명되지 못하는 잉여부분으로 남는다. 시니피앙이 남긴 끊임없는 찌꺼기는 주체를 분절시키고 소외를 불러일

으킨다. 라캉은 이러한 상황에 종속된 것을 인간의 언어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연적 의미’라고 하였고, 위의 빨간 새는 상징계 언어영역으로 들어가는 추적을 통한 시니피앙의 사후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라캉의 세미나 III(1997)에서 언급된 “리틀 로빈 새의 예시로 빨강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의 의미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미화)의 미끄러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언어 영역은 의미의 복잡함을 음미하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의 소리, 즉 청각이미지에 의한 시니피앙에 의해 말하여지고, 말하여짐과 동시에 의미의 충실함은 상실된다. 그 후에는 시니피앙만이 떠돌아다닐 뿐이다. 여기서 시니피앙의 몰이해와 그것을 운반하는 자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éconnaissance와 운반자는 고정관념 세계의 몰인지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반영하고 이것을 운반한 자는 몰이해의 주체로서 전체라는 고정관념 속에 운반자를 반영시킨다. 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반복과 반영의 과정은 둘의 존재를 망각시킨다. 남는 것은 리틀 로빈 새라고 하는 시니피앙만이 남는다. 따라서 시니피앙은 계속 시니피에의 우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반복과 반영의 나르시시즘

#### 1. 닳은 자는 서로를 죽인다.

고정관념의 세계는 서로의 욕망에 의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캉은 문학작품을 비유하면서 상호주체의 상상계의 반복을 이야기한다. 『햄릿』을 언급하면서 레이아티스는 “햄릿은 자신과 닳은 자이며 그것은 『햄릿』에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다”(Jacques L, 2008)고 주장했다. 햄릿과 레이아티스와의 관계는 라캉이 말하기를 “닳은 자의 경쟁(la rivalité avec le semblable)”으로 묘사한다. 햄릿과 닳은 자인 레이아티스는 서로에게 반영적인 관계이나, 두 사람은 또 다른 신화인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식들의 상호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오이디푸스의 두 자식들은 전쟁으로 사망해 버렸으며, 라캉은 이 일에 대해 닳은 자는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묘사하였고, 이 경쟁관계를 “상상의 흡수(l’absorption imaginaire)”가 양자 관계에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8]

상상계 속에서의 의미의 반복과 자기이상을 투영한 반영은 강력한 나르시시즘을 생산한다. 햄릿이야기의 압투도 히스테리 담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욕망에 사로잡혀 상상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복은 한 개의 시니피앙과 다른 시니피앙과의 연쇄를 만든다. 햄릿과 레아티스는 서로에게 욕망을 반영한다. “시니피앙은 별개의 시니피앙에 대해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Lacan, 2008).”라는 라캉의 설명이 분명해진다. 두 개의 시니피앙은 반복과 반영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타자의 주체가 나타난다. 라캉이 말하기를 주체는 시니피앙의 연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한 개의 주체는 시니피앙의 유기적 결합(articulation) 입에 틀립없다(Lacan, 2008).”고 말하고 있다.

주체는 스스로의 신체상이란 시니피앙과 다른 신체상과의 시니피앙에 동일화시켜 자시자신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변환시켜 주체를 만들 수가 있다.(Akira, 2017) 필자는 이것이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의 매커니즘의 전형으로 보고,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9]의 개념을 햄릿이야기를 통해 시니피앙의 반복과 나르시시즘의 반영적 관계의 주체의 드러남을 더욱더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햄릿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욕망의 주체로 드러남과 동시에 햄릿이야기 비극의 결말도 시니피앙의 연쇄에 의해 돌고 도는 것이다. 결국에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다다르지 못한다. 시니피앙의 주체는 우리의 원하는 결과를 기다려 주질 않는다. 대타자는 절대로 주체로 하여금 기회를 주지 않으며, 우연이 진리일 때에만, 그 진리의 주체는 실재계를 체험하지만, 또 다시 주체는 망각되어 환상을 떠돌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증상만을 즐기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즐기는 주체가 된다. 욕망을 향한 주이상스는 실현될 수 없으며, 햄릿이야기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타자의 장소에서 주체의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투쟁은 나르시시즘의 세계 속에서 자신과의 사랑에 빠진 동일시를 넘어 최초의 나르시시적 관계인 엄마의 자궁 속에 틀어박힌 만능으로서의 주체인 아기 폐하로 회귀한 상태일 것이다(Lee soojin, 2019). 님은 자의 상상계는 의미의 반복과 타자로부터 반영된 자의적 해석에 의한 가장 안전한 곳에서의 투쟁을 하려는 아기 폐하의 영토에서 주이상스를 성취하려고 하는 나르시시즘의

회귀이다.

## 2. 껍질로서의 시니피앙과 사후성

시니피앙은 뒤늦은 행동을 보여준다. 1957년 2월 6일 세미나V에서 시니피앙의 사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nachträglich (나중의, 뒤늦은)’이란 뜻의 독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한 개의 언설에는 한 개의 소재 한 개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설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설에는 시간 속에 차원과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개의 구절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내가 끝까지 말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라캉은 이것을 시니피앙의 사후적 행동 (l'action nachträglich du signifiant)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시니피에보다 시니피앙이 우위에 있다는 라캉의 주장이다. 소쉬르가 시니피앙(기의)와 시니피에(기표)를 동일선상에 놓은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최초로 시니피앙이 있고, 그 후에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라캉은 세미나에서 “시니피앙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최초의 시니피앙에 대한 언급으로 시니피앙은 의미와 절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캉은 세미나XX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니피앙이 그것 만으로 상정되는 것은 그것이 시니피에와는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니피앙은 귀와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니피앙으로써 들리기 때문에 간파되는 것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시니피앙의 분석은 분석주체의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에크리(2019)의 ‘칸트와 함께 사드’에서 라캉은 ‘qui vide l'écaille’ 껍질을 비우는 것을 언급한다. 정신분석에서 l'écaille(껍질,비늘)이란 우리의 환상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이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의미의 미끄러짐에서의 간극이 발생하고, l'écaille'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언어가 있어야 말이 있다.’는 에크리(2019)에서 언급한 내용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상상계의 언어는 강력한 껍질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분석주체가 발화하는 시니피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것이고, 껍질

의 환상을 걷어내야 욕망을 양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껍질을 벗긴 후 타자의 장소에 분리가 발생하면, 대상a(욕망의 원인)를 넘어 최초 주체가 위치했던 텅 빈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주체가 텅 비어진 최초 존재의 나약함으로부터 무(ex-nihilo)로서의 출발이다. 따라서 라캉이 세미나VII에서 ‘그곳이 있던 곳에, 그곳에 도래해야 한다’는 의미는 타자의 영토에는 주체의 자리는 없으며, 타자의 주이상스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닌, 분석가는 존재가 망각된 껍질의 빈 곳으로 시니피앙의 간극을 간파하여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불가능한 실재계와 조우하기 위해 타자를 위해 도착적인 욕망의 소유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으로 도래해야 하는 장소는 주체의 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존재는 어떤 타자의 욕망에 사로잡힌 도착의 주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욕망한 것 자체가 도착이다.

시니피앙의 사후성과 관련하여 라캉이 1972년 7월 14일자로 소개된 레튀디(L'étourdit는 아소시앙시온 그룹 비매품으로 분포됨)의 문장을 인용하여 소개한다.[10] 레튀디의 뜻은 물정에 어두운 자, 혹은 덜렁덜렁한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귀로 듣는 음성으로부터 문자로 읽는 과정에서 말의 의미작용은 수수께끼가 있고, 정신분석의 실천에서 그것을 해명하려 한다.

- ① Qu'on dise reste oublié derrière ce qui se dit dans ce qui s'entend..
- ② Cet énoncé qui paraît d'assertion pour se produire dans une forme universelle, est de fait modal, existentiel comme tel : le subjonctif dont se module son sujet, en témoignant.
- ① 우리가 나머지 말했던 것은 들려진 것에 의해 말해진 후에 잊혀졌다.
- ②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진술은 사실 증언을 통해 주체를 조절하는 접속사와 같은 양상적이고 실존적인 행위이다.

①은 말했던 것, 들려진 것, 말해진 후에 잊혀진 것을 기술하고 있고, 그것은 목적이 없으며 의미화가 일어난다. ②의 문장은 내용적으로는 ①을 검토하고 해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체를 조절하는 접속사라는 표현은 시니피앙을 반복시키는 역할과 시니피앙의 자의적인 의미반영을 일으키는 그 자체로서 실존의 행위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시니피앙의 연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1 \ S1' \rightarrow S2 \ S2' \rightarrow S3 \ S3' \rightarrow \dots \dots \dots S_n$$

시니피앙은 언어기호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재료가 되고, 다음의 시니피앙을 향하여 대리표상한다. S1부터 S2로 이행된다. S1은 담화의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니피앙이다. 이것을 시니피앙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S2는 S1에 종속하고 있고, S1은 다음의 S2에 의해 처음으로 의미작용을 가지고, 그 후에 S<sub>n</sub>의 창조자가 되고 주인이 된다. 그러나 S1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며, 자기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결핍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은폐하고 봉합하기 위한 대리표상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미나XI(2008)에서 시니피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보자.

“주체는 첫 번째 시니피앙이 나타나는 곳으로서의 타자의 장소에서 최초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시니피앙은 주체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대표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누구에겐가 주체를 대표한다면, 여기서 그 누구란 또 다른 주체가 아니라 또 다른 시니피앙을 시니피앙을 말합니다.....주체는 시니피앙이 타자의 장에 출현하는 장에서 탄생합니다(Lacan, 2008).”

라캉의 사후성은 첫 번째 시니피앙이 나타나는 곳에서 출현하지만, 주체는 사후성의 의미화를 거쳐 타자의 장소에서 나타난다. 시니피앙의 주체는 다음 시니피앙으로의 반복과 ‘nachträglich’(나중의)의 반영을 통하여 출현하기 때문에 시니피앙이 상징계 속에서 주체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타자의 장소에서 다음의 시니피앙으로 반복되는 타자의 장소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nachträglich’의 시니피앙 사후성에 대한 끊임 없는 저항이 반복될 수 있을 때, 텅 빈 주체가 나올 수 있다. 왜 텅 빈 주체가 중요한지는 결론에서 다룰 것이다.

#### IV. 유대인 담화와 속지 않는자

라캉은 태백성(해가 진 후의 서쪽 금성)과 셋별(새벽 동쪽의 금성)의 예를 들면서 이 둘의 의미는 동일하지 만 의의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둘 다 금성을 지시하고 있다. 금성이라는 언어기호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와 의미 대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캉이 말하는 의미와 의미 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논문에서 의미있는 유대인 담화를 소개한다.

“두 명의 유대인이 어떤 가리치아 지방의 기차역에서 만난다. 어느 쪽이? 한사람이 묻는다. 크라쿠프까지 라고 대답이 돌아온다. 어이! 넌 거짓말쟁이다. 그 남자가 화를 내면서 말한다. 네가 크라쿠프까지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램버르크로 간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고 있었잖아! 그렇지만, 넌 실제 크라쿠프까지 가잖아! 왜 넌 거짓말을 하는 거지?”[11]

대화 속에서 크라쿠프가 S1으로서 말해진 것이고, 램버르크는 들려진 것으로 S2이고, 담화는 이어지고 있다. 크라쿠프는 의미화가 없는 시니피앙 그 자체이다. 그런데 이것이 들려진 후에 램버르크가 되고, 다음의 시니피앙으로 연쇄된다. 이 사이에서 의미작용과 의미의 간극이 발생한다. 의미작용은 어떤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에 의해 대체될 때 파생한다. 에크리(2019)에서 언급된 유사한 내용을 보자.

“즉 여기서 우리는 정확성의 장에서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전혀 다른 곳, 정확히 상호주체성의 토대에 위치한다. 그것은 주체가 대타자를 절대자로 구성하는 주관성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다.” 라캉은 이렇게 말하고 본인의 술직함(dépouillement, 허물 벗기기 빼앗기)을 언급하며 유대적 농담으로 이어간다. “너는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니?”.....“그래, 실제로는 크라쿠프로 갈 거면서 내가 램버르크로 갈 거라고 믿도록 크라쿠프로 갈 거라며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니(Lacan, 2019)?”

프로이트 유대인 담화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라캉은 세미나VII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의 테제는 Ding(큰사물)[12]의 보증자가 되는 실재, 바로 이 실재

자체를 거냥하면서 도덕법칙이 나뉘진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도덕행위에 대한 다음의 주장을 이어 보자. 라캉이 말하기를 “도덕행위는 사실상 실재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도덕행위는 우리의 현존 지점이 스스로를 제한하게 될 흔적을 창조해내면서 실재 속에 새롭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담화는 실재를 거냥하고 있다. 시니피앙이 옮겨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실재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침묵이 깨지고 도덕법칙이 분절된 것을 볼 수 있다. 라캉 정신분석은 실재의 자리에 가려는 시도이며, 그곳에는 Ding(큰사물)이 있다. 국내에서는 Ding이 큰사물로 번역되고 있으나, 라캉도 Ding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따라 본 논문은 Ding을 그대로 사용했다. 침묵이 깨지는 균열이 일어나는 시니피앙(기표)과 시니피에(기의)지점은 대타자의 간섭으로 인해 쾌락이 제한되며, 균열의 지점에 더 강력한 타자의 지식의 영역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달한다. 그들이 다가간 영토는 Ding의 자리이다.

Das Ding 은 프로이트 초기의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나온 개념으로 최초의 만족체험이 남긴 기억흔적의 사건을 이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Ding은 이미 상실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최초의 대상을 가리킨다. 첫 단계의 수유시기에 있어 엄마로부터 부여된 이미 상실해버린 원초적 쾌감의 기억흔적을 가리킨다. 라캉은 Ding을 1953년 로마 강연 시기부터 탐구하고 있다.

라캉의 유명한 용어인 ‘non dufe(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 유대인 담화에서 한 사람은 도덕행위에서 속은 것이 아닌, 속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진실의 영역에서 방황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계 반영의 부수물이다. 램버르크로 간다고 거짓말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목적지가 램버르크인지 크라쿠프인지 모른다. 가는 도중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하지만, ‘non dufe’의 도덕행위는 대타자의 균열을 드러내고 과감하게 질문한다. 그는 타자의 욕망을 우연처럼 잠깐 넘어 서려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방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상상계의 반복작용은 스스로에게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반영을 통해 상징계에 대항할 수 있다. 시니피앙은 계속 떠돌아다니지만, 시니피앙의 목적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자는 방황을 통해 제한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라캉은 세미나X I에서 비정서법으로 환자가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석 초기에는 모든 환자들이 정서법

(정확하게 하려는 환자의 태도)으로 둔갑하지만, 시니피앙의 허의 미끄러짐이 시작되면 그것이 더 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분석공간이 열리는 것은 환자의 강력한 나르시시즘이 파괴되는 영광과 공포의 순간이다. 분석 현장에서 시니피앙의 해석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 V. 결 론

### 시니피앙의 한계를 넘어서

필자는 라캉 세미나와 에크리에서 시니피앙의 연쇄, 그리고 시니피앙과 주체의 관계를 상상계와 상징계와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일상적 대화에서 의미 없이 반복되고 스스로 대타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해 나르시시즘에 회귀하려는 강력한 아기 폐하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철학자와는 다르게 라캉은 자신이 문제시하는 개념에 대해 직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라캉의 문체는 욕망의 글쓰기를 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욕망의 주체는 언어의 은유와 환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의 구조 속에는 시니피앙이 있다.

라캉은 자신의 세미나 출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라캉 세미나는 강연현장에서 구두로 말한 것을 나중에 책으로 옮긴 것이다. 서론에 라캉이 필경사라 말한 것도 이 이유이다. 라캉은 자신의 publication(출판물)에 대해 poubellication(쓰레기)이란 조어를 만든다. 이것은 poubelle(쓰레기통)을 출판물에 적용한 것으로 출판이 되는 순간, 지식의 체계에 종속되는 것에 대항하는 라캉의 의도이다. 분석가의 자세가 바로 이런 권력에 속지 않는 자 ‘non dufe’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로 근간을 이루고 그곳에는 시니피앙이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일상담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혔고, 그 지점에서 공적담화와 사적담화의 실타래가 실제 담화 속에서 어떠한 기능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대인 담화에서는 시니피앙의 의미와 의미작용의 한계를 봄과 동시에 시니피앙의 윤리적인 문제를 각인시켰다. 유대인 담화는 허구와 현실의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로 가고 싶은 마음 즉, 욕망하는 마음과 발화의 의미는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차의 장소는 현실의 장소로 나타난다. 유대인 담화는 허구와 현실의 구분점이 없는 허상의 신화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담화 속에서 의미와 의미작용의 어긋남은 계속 진행형이며, 멈추지 않는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니피앙의 영역으로 종속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라캉 상상계의 끊임 없는 의미화 되지 않는 반복의 결과이다. 의미화의 세계인 상징계에 진입하면 인간존재는 한층 더 타자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나르시시시적 반응을 통해 아기폐하로 회귀하려는 전형을 보인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앙 사이의 의미의 균열은 잉여의 공간을 발생시키고 주이상스(향유)를 파생시킨다. 라캉이 세미나XX(2019)에서 시니피앙과 주이상스를 언급한 부분을 보자.

“시니피앙은 향락하는 실체의 수준으로 위치된다 고 말합니다. 그것은 항상 언급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니피앙 그것은 주이상스의 원인입니다.....”[13]

라캉은 세미나XX에서 시니피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량인을 예로 들면서 “시니피앙의 기여에 의해 신체적인 시니피앙으로 된 일부분” 시니피앙의 원초적 기능과 주이상스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세미나XX 언급된 시니피앙과 주이상스의 관련성 부분은 라캉 세미나 후기의 확장시키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시니피앙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시니피앙이 라캉의 언급한 데로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무거운 목적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과 연합될 때, 주체는 자율성을 망각해 버리고 상징계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반복의 과정이 현실에서 계속 일어난다. 라캉은 ‘대타자는 우리를 절대로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타자의 질서의 세계는 동일성과 보편성의 세계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의 세계도 왜상이며, 관여하지 않는 세계도 왜상의 세계다. 시니피앙의 반복과 반영의 장소에서 주체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마치 그것을 하지 않는 듯이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주체의 본래 장소는 공백인 것이고, 시니피앙의 균열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라캉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무(ex-nihilo)의 주체이다.

## References



- [1] Daisuke Aratani, *Lacan Philosophy, Psychoanalysis as a Practical Philosophy*, Japan: Works, (2018)
- [2] Jacques Lacan, *Seminar II*(S. Tomaselli, Tra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 [3] Jacques Lacan, *Seminar XI*(Maeng Junghyun, Lee Suhyun Trans), Seoul: SaeMulKyeol, (2008)
- [4] Jacques Lacan, *ÉCRITS*, (Hong Junki, Lee Joyoung, Cho Hyungjun, Kim Daejin Trans), Seoul: SaeMulKyeol, (2019)
- [5] Baek Sanghyun, *Anthropology of Lacan*, Paju: Hugobooks, (2017)
- [6] Maria Balaska, *WITTGENSTEIN AND LACAN AT THE LIMIT*, palgraveMacmillan, (2019)
- [7] Jacques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I: The Psychosis*(J-A Miller, Russell Grigg Trans), (1997)
- [8] Akira Unami, *Lacanian thinking*, Japan: Sakuhinsha, (2017)
- [9] Lee soojin, *A Study of the Meaning of Psychoanalytic Practice about the Consideration of Lacan's Concept of Narcissism*, *Th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2019) Vol. 21 No. 2 pp. 85.
- [10] Sasaki Kozi, *Lacan 「L'étourdit」*, Japan: Selinga Shobo, (2015)
- [11] Freud, *The Complete Works of Freud 8 1905: Wit*(Nakaoka Seifumi, Taijudo Makoto, Taga Kentaro Trans), Japan: Iwanami Shoten, (2008)
- [12] Baek Sanghyun, *Anthropology of Lacan*, Paju: Hugobooks, (2017)
- [13] Jacques Lacan, *Encore*(Hiroshi Fujita, Humiho Katayama Trans), Japan: Kodensha Selection Book, (2019)